



삼국사기 전지왕조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전지왕은 백제의 제18대 왕이다. 태자 시절 왜에 질자(質子)로 갔다가, 아신왕(阿莘王)의 죽음 이후 백제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다. 왕족과 해씨(解氏) 세력을 중심으로 정국을 재편하였으며, 상좌평(上佐平) 직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2 전지왕의 가계와 태자시절

전지왕은 직지왕(直支王) 혹은 진지왕(眞支王)이라고도 한다. 성은 부여(夫餘), 이름은 영(映)으로, 줄여서 여영(餘映)이라고도 한다. 중국측 사서인 『송서(宋書)』에는 부여전(夫餘腆)이라고 나온다.

전지왕은 제17대 아신왕의 맏아들로,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왕비는 팔수부인(八須夫人)으로, 제19대 구이신왕(久爾辛王)의 어머니이다. 팔수부인의 출자에 대해서는 해씨 집안, 진씨(眞氏) 집안, 왜(倭)계 등 다양한 주장이 있으나, 해씨 집안 출신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구이신왕이 전지왕의 맏아들이라 기록된 점으로 보아 다른 자식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이름과 활동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전지왕의 재위기간은 405년부터 420년까지이다. 그런데 『송서』에는 전지왕이 424년(구이신왕 5)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428년(비유왕 2)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망 연대에 차이를 보인다.

전지왕은 아신왕 즉위 3년 만인 394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하지만 당시 백제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함으로써 석현성(石峴城)과 관미성(關彌城) 등 북방의 요충지들을 빼앗겼다. 그 중에서도 396년(아신왕 6, 고구려 영락 6)의 전쟁은 백제의 존망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광개토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공격해 와, 한성이 포위되기에 이른 것이다. 아신왕은 광개토왕에게 항복하고 영원히 노객(奴客)이 될 것을 맹세하는 굴욕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신왕은 군사를 요청하기 위해 왜(倭)와 우호를 맺었고, 이듬해인 397년(아신왕 6)에 태자였던 전지가 왜에 질자(質子)로 건너가게 되었다.

[관련사료](#)

전지는 즉위하기 전까지 23년간 왜에 머무르면서 백제와 왜의 가고 역할을 했다. 당시 전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왜의 군사적 지원이었는데, 이같은 노력 덕분에 왜가 가야 지역과 고구려의 대방(帶方) 지역까지 군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동시에 전지는 장기간 왜에 체류하면서 왜를 자신의 든든한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 결과 왕위에 올라서도 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3 전지왕의 왕위 계승

405년(아신왕 14) 9월, 아신왕이 죽었다. 당시 아신왕의 나이는 3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에는 아신왕의 사망에 앞서 왕궁 서쪽에서 한 필의 비단과 같은 흰 기운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사회에서 흰 기운이란 왕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왕의 죽음이 임박했는데 태자가 계속 왜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아신왕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태자의 부재로 인해 백제에서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지배세력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아신왕의 둘째 동생인 훈해(訓解)는 정사를 대신하면서 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막내동생인 비유(比尤)가 훈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지왕 왜에 있을 당시의 상황은 두루 기록